

한화솔루션, IRA 전략적 대응… 美에 태양광 공장 통큰 투자

〈3조2000억원〉

조지아주에 셀·모듈 공장 추진
올 상반기 착공, 내년부터 생산
美 사상 최대 에너지 시설 예고
세액 공제 등 IRA 혜택 기대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은 17분기,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은 12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구영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대표는 “한화솔루션이 북미 태양광 시장 공략을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조성한다”며 미국 태양광 산업 선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솔라 허브’ 북미 최대규모 생산 능력

한화솔루션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서 ‘2023년 한화솔루션 신년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한화솔루션은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현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한다.

연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현재 연 생산 능력이 1.7GW인 모듈은 생산 라인 추가 증설을 통해 총 8.4GW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북미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가 11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2023년 한화솔루션 신년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태양광 시장이 매년 20% 안팎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일 기업으로서 북미 지역에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한화솔루션은 우선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내년 말 상업 생산을 목표로 각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통합 생산 단지를 건설한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가치사슬 5단계 가운데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부가세·재산세·법인세 감면 ▲현금 지원 ▲부지 단가 할인

▲인프라 건설 지원 ▲채용관련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조지아가 최적의 지역으로 판단했다.

◆IRA 대응·활용에 적극적

한화솔루션은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IRA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RA가 본격 발효된 올해부터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한화솔루션의 이번 투자가 IRA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에는 모듈 기준 현지 생산 제품에 W당 최대 18% 세액 공제를 해준다.

한화솔루션의 자금조달 방법도 IRA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 신용인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재무실장은 “작년 말 연결기준 보유현금 2조원과 올해와 내년도의 영업활동현금 흐름이 있고, 완공 이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초기 투자자금은 1조원 남짓인데 그 부분은 본사 보유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필요 부분에 대해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자금에 우호적인 정책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 측은 당장 7000억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풀 케파 생산을 가정할 경우 최대 세액공제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화솔루션은 솔라 허브 생산라인에 지난해 지분을 인수한 REC실리콘이 만드는 폴리실리콘 투입을 검토 중이다. REC실리콘은 워싱턴주 모지스레이크에 위치한 수력 발전 기반의 친환경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다. 올해 말부터 약 5.3GW의 셀 생산 가능 규모인 연간 1만6000톤의 폴리실리콘을 양산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은 내년부터 솔라 허브가동이 본격화하면 북미 지역에서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인 모듈까지 5단계 밸류체인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된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태양광 제품 판매를 통해 현지 시장 1위 자리를 더욱 탄탄히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 대표는 “솔라 허브는 매년 20% 안팎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태양광 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이자 밸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한군데 모으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공개… 메모리 반등 트리거 될까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DDR4 중심 메모리 시장 개편 기대

반도체 시장을 되살릴 영웅이 돌아왔다. 인텔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사파이어 래피즈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우려와는 달리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차세대 제품도 연내 출시를 예고하면서 메모리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텔코리아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온 사파이어 래피즈 제품군을 공개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 글로벌 출시에 곧이어 국내에서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인텔 서버용 CPU는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확보하고 있을 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수요를 주도해 반도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



인텔코리아 나승주 상무가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소개하고 있다.

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사파이어 래피즈는 DDR5 D램만 전용으로 지원해 DDR4 중심이었던 메모리 시장을 개편할 필수 조건으로 지목돼왔다. DDR5 D램이 DDR4 D램 대비 가격이 높은 만큼, 메모리 가격 하락세를 멈춰설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인텔은 이날 사파이어 래피즈가 지난

해부터 고객사에 공급 중이라며 이미 램프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 실제 제품 출시는 하반기에서야 가능할 것이라던 우려를 완전히 불식했다. 출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상품성에 완벽을 기하고 생산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사파이어 래피즈가 끝이 아니다. 인텔은 올해 말 차세대 제품인 에메랄드 래피즈, 그리고 내년에는 그레나이트 래피즈까지 연달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에메랄드 래피즈가 사파이어 래피즈와 출시 시기가 1년 미만으로 붙어있긴 하지만, 서로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만큼 수요를 간섭하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경쟁사와 간격이 좁혀진데 대한 대응으로 추정된다.

DDR5 D램만이 아니다. 사파이어 래피즈는 처음으로 PCIe5.0과 함께 CXL(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1.1 규격도 지원한다. CXL은 주변 기기들과 빠르고 광범위하게 통신할 수 있어 컴퓨팅 속도를 높일 획기적인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손꼽힌다. 인텔이 처음 ‘컨소시엄’을 발족해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도 앞장서서 CXL을 지원하는 메모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성능 개선도 큰폭으로 이뤄졌다. 코어를 60개나 담아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가속기를 업계에서 가장 많은 12개나 내장해 다양한 사용자에게 최적화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온디맨드’ 방식으로 제공해 수익 모델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세대 제품보다 와트당 성능을 평균 2.9배 높여 효율성도 제고했다.

/김재웅 기자 juk@

미디어로그, 중고폰 시장 본격 진출

중고폰 매입 플랫폼 ‘셀로’ 오픈
사회적 가치 실현 ESG경영 일환

미디어로그가 중고폰 매입 플랫폼을 출시하며 중고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미디어로그는 중고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접근성을 향상한 온라인 중고폰 매입 플랫폼 ‘셀로(SELLO·사진)’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 IDC가 최근 발표한 세계 중고폰 시장 전망 자료에 따

르면 중고폰 시장은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10.3%를 기록하고 시장 가치는 999억 달러(약 1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중고폰 거래가 폭발적으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잔존가치 판단 부재와 제품가격의 변동이 심해 소비자 불만이 높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미디어로그는 미래 성장성에 비해 시장에 대한 불신이 강한 중고폰 시장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시장 진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셀로 출범은 중고폰 매입시장을 넘어 ‘가치의 선순환을 통해 더 좋은 공유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경영활동의 일환이다.

셀로는 중고폰 거래 고객에 좋은 가격에 쉽고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판매금액으로 새로운 폰과 통신요금, 콘텐츠 구독에 보탬이 되도록 통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셀로는 ▲데이터 이중 삭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걱정이 없고(Safe)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며(Simple) ▲정교한 검수, 공정한



미디어로그는 중고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접근성을 향상한 온라인 중고폰 매입 플랫폼 ‘셀로(SELLO)’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디어로그

가격 책정(Smart)으로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LG유플러스

중소협력사 납품대금 현금 200억 조기지급

LG유플러스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2000여 중소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20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추석·설 명절 전 납품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들과 상생을 도모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조기 집행된 납품대금 누적 액수는 34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기 집행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된다.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및 설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 등에 조기 확보한 대금을 활용할 수 있다.

동반성장을 위해 LG유플러스는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IBK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이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납품이전에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과 5G 기술 기반 신규 서비스와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5G 이노베이션 랩’, 중소 협력사들이 통신장비나 솔루션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구매를 보장하는 ‘협력사 제안의 날’ 등을 통해 협력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